

28년 숙원 풀었다...프로농구 LG, 창단 첫 우승

2024-2025 챔피언결정전 서울 SK에 4승 3패...허일영 MVP

프로농구 창원 LG가 서울 SK와 벌인 7차전 끝장 승부에서 이겨 창단 28년 만의 첫 우승을 차지했다. LG는 지난 17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24-2025 KCC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7전 4승제) 7차전 원정 경기에서 서울 SK를 62-58로 물리쳤다.

1-3차전에서 승리했으나 4-6차전을 연달아 내줘 '역스윙' (역싸늘이) 위기에 몰렸던 LG는 시리즈 마지막 경기를 잡아내며 4승 3패로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프로농구 출범과 함께 1997년 창단한 LG가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차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규리그 1위는 2013-2014시즌 한 차레 이룬 적이 있으나 해당 시즌 봄 농구에선 준우승에 그쳤다.

2022년 LG 지휘봉을 잡아 데뷔 시즌과 2023-2024시즌 잇따라 팀을 4강 PO에 올려놓은 것에 만족해야 했던 조상현 감독은 유여극절 끝에 구단 첫 우승을 지휘해냈다.

조 감독은 김승기 전 고양 소노 감독, 전희철 SK 감독에 이어 선수, 코치, 감독으로 모두 우승을 경험한 3번째 농구인이 됐다.

SK는 역대 최소인 46경기 만에 정규리그 1위를 확정짓는 기세를 5월로 이어오지 못하고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시리즈 승부를 가른 이날 양 팀 최다 14점을 몰아친 39세의 LG 베테랑 슈터 허일영이 시리즈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허일영은 기저단 투표에서 총 80표 중 32표를 받아 팀 동료 칼 타마요(23표)와 아셴 마레이(22표)를 제쳤다.

LG는 우승 상금 1억원을, 허일영은 MVP 상금



LG 세이커스의 조상현 감독이 골대 그물을 자르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000만원을 받는다.

6차전과 마찬가지로 양 팀 모두 숏 난조를 보인 가운데 LG가 1쿼터 10-8로 앞서나갔다.

양 팀 합계 18점은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한 쿼터 최소 득점 신기록이다.

2쿼터에도 양 팀의 솜은 여전히 영점이 맞지 않은 모습이었으나 공격 리바운드에서 앞선 LG가 격차를 벌려 나가기 시작했다.

쿼터 초반 허일영과 양준석의 3점이 잇따라 터진 LG가 8점 차까지 달아났으나 막판 잇단 턴오버에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추격을 허용해 27-23으로 전반을 마쳤다.

팽팽하던 흐름은 4쿼터 LG의 외곽포가 폭발하면서 요동쳤다.

허일영과 양준석이 잇따라 3점을 쏴아 49-44로 격차를 벌렸다.

6분 20여초에는 시리즈 후반부 들어 부진하던



17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24~2025시즌 프로농구 서울 SK 나이츠와 창원 LG 세이커스의 챔피언결정전 7차전 경기에서 승리한 LG 선수들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타마요가 우중간에서 이날 자신의 2번째 3점을 넣었다.

5분 30여초엔 허일영이 다시 정면에서 3점을 던져 림을 갈랐다. 55-45, 이날 첫 10점 격차를 만들었다.

그러나 SK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LG의 득점을 약 3분 동안 묶고 김형민의 연속 3점과 김선형이 속공 득점으로 53-55로 따라붙었다. 1분 58초를 남기고는 타마요가 김태훈에게 파울

을 범해 5분 반 퇴장당하고, 김태훈의 자유투 득점이 더해지면서 SK는 54-55를 만들었다.

LG는 유기상의 스틸에 이은 속공에서 마레이가 38초를 남기고 득점해 57-54로 다시 승기를 잡았다.

종료 20여초를 앞두고 58-55로 앞선 LG가 공격에 나섰다, SK는 파울 작전에 돌입했다.

SK는 위니가 11.1초를 남기고 3점을 쏴아 2점차를 만드는 등 마지막까지 사력을 다했으나 유

성이 자유투 4개를 모두 성공하면서 LG가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허일영은 이날 3점 4개를 포함해 14점을 몰아치며 우승에 앞장섰다.

허일영은 고양 오리온(현 소노), SK에 이어 역대 최초로 3개 팀에서 챔피언결정전에 출전해 우승한 선수가 됐다.

이날 경기장엔 50240명의 관중이 꽂 들어차 챔피언결정전 18경기 매진 행진을 이어갔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선수단, 전국소년체전 사전경기 금빛 스타트

금 3·은 2·동 3개 획득

전국 소년체전 24일부터

광주·전남 선수단이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사전경기에서 메달 행진을 펼치며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김해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에서 열린 육상 사전경기에서 광주·전남 선수단은 메달 8개(금 3개, 은 2개, 동 3개)를 따냈다.

포환던지기 여중부 경기에서 김태빈(목포하당중 3년)은 14.22m를 던지며 1위에 올랐다. 김태빈은 원반던지기 중목에서도 39.09m로 금메달을 더했다.

이하은(광양백운중 3년)은 멀리뛰기 여중부 경기에서 5m75로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하은은 세단뛰기 경기에서도 11m24 기록으로 동메달을 얻어냈다. 이하은은 지난해 대회에서도 멀리뛰기와 세단뛰기 금메달을 탄 바 있다.

남중부 400m에서 윤찬영(전남제중3)은 50.31

초 기록으로 은메달을 차지했다. 광주 선수들도 메달권에 이름을 올렸다. 남중부 200m에서 홍석민(빛고을초 6년)은 25초35기록으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강요한(광주제중 3년)은 남중부 멀리뛰기 경기에서 6.80m로 은메달을, 세단뛰기에서 13.85m로 동메달을 추가했다.

한편 제54회 전국소년체전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경남 일대에서 열린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이예원, KLPGA '매치퀸' 등극...시즌 3승

이예원(사진)이 두 번 준우승의 아쉬움을 씻어내고 마침내 '매치퀸'에 올랐다.

이예원은 18일 강원도 춘천시 라데나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두산 매치 플레이(총상금 10억원) 결승에서 황유민을 4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지난 2022년과 작년에 이 대회 결승에서 저 준우승에 만족했던 이예원은 세 번째 오른 결승에서 기어코 우승을 일궈냈다.

조별리그 3연승과 16강전, 8강전, 4강전에 이어 결승까지 7경기를 내리 이긴 이예원은 4차례 두산 매치 플레이 출전에서 통산 20승 4패라는 놀라운 승률을 남겼다.

이예원은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에 이어 2주 연속 우승으로 이번 시즌 맨 먼저 3승 고지에 올라 "꼭 반했다"고 다짐한 다승왕 경쟁에서 크게 유리한 입지를 다졌다.

이예원은 신인이던 2021년에는 우승이 없었지만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3승씩을 따내 통산 9승을 쌓았다.

우승 상금 2억5000만원을 받은 이예원은 상금 랭킹 1위(7억5296만원)와 대상 포인트 1위를 질주했다. 통산 상금도 39억7226만원으로 최단기간 상금 40억원 돌파에 눈앞에 뒀다.

이예원은 이날 오전 치른 준결승에서 2022년 이 대회 결승에서 자신을 꺾고 우승했던 홍정민을 3홀 차로 제압하고 결승에 올랐다.

준결승에서 노승회를 제치고 결승에 올라온 황유민과 이예원의 결승전은 인기와 실력을 겸비한 스타 플레이어끼리 대결이라 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경기는 경험과 정교함에서 앞선 이예원의 일방적인 승리였다.

이예원은 1번 홀(파4)에서 사실상 3퍼트 보기



로 황유민에게 먼저 1홀을 내줬지만 2번 홀(파5)에서 황유민이 네 번 만에 그린에 볼을 올려 파퍼트를 놓지 못한 덕분에 금세 만회했다.

이예원은 3번 홀(파3)에서 1m 버디를 잡아 앞서나갔다.

6번 홀(파5)이 승부의 분수령이었다.

황유민은 241m를 남기고 3번 우드로 그린을 공략해 3m 이글 기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황유민의 이글 퍼트는 홀을 살짝 비껴갔고, 세 번 만에 그린에 올라온 이예원은 1.5m 버디 퍼트를 집어넣었다.

6번 홀 이후 황유민은 스스로 무너졌다. 승부는 사실상 12번 홀(파5)에서 일찌감치 갈렸다.

이예원이 먼저 투온에 성공했고, 황유민은 두 번째 샷을 그린에 올리지 못했다. 황유민의 9m 버디 퍼트가 빗나갔고, 이예원은 두 번 퍼트를 가볍게 버디를 잡았다.

이예원은 15번 홀(파4)에서 황유민의 버디를 노린 칩샷이 빗나간 뒤 파를 지켜 3홀을 남기고 승리를 확정했다. /연합뉴스

전국장애학생체전 폐막...광주 46개·전남 73개 메달 획득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경남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 4100여명의 선수단이 참여했다.

광주에서는 11개 종목 123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총 46개(금 16개, 은 12개, 동 18개)의 메달을 얻었다. 전남에서는 10개 종목 147명의 선수단이 참여, 총 73개의 메달(금 14개, 은 28개, 동 31개)을 품에 안았다.

광주 선수단에서는 여자 지적 60kg급 김유나(선영학교1년)가 데드리프트, 스쿼트, 파워리프트 종합에서 3관왕의 쾌거를 이뤘다.

김유은(광주선영학교 1년)은 여자 육상 청각 100m와 200m 경기에서 1위를 차지하며 금메달 2개를 더했다. 이가은(광주선명학교 2년)도 여자 육상 지적 200m, 400m 경기에서 금메달 2개를 얻어냈다.

배드민턴의 송형우(광주선광학교 2년)는 남자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경남에서 열린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이가은(광주선명학교 2년·왼쪽 세번째)이 여자 육상 지적 200m, 400m 경기에서 금메달 2개를 얻어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공>

지적 단식과 혼성 복식에서 금메달 2개를 목에 걸었고, 조정의 문가영(광주자연과학고 3년)은 여자 지적 1000m 타임레이스, 혼성 1000m 타임레

이스 단체전에서 2관왕이 됐다.

전남에서는 육상의 노연희(은광학교 1년)가 여자 시각 100m·200m 경기에서, 수영의 김수현(구례여중 1년)이 여자 지적 배영 100m와 평영 1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또 전남 선수단은 e스포츠 종목에서 총 14개(금 2개, 은 6개, 동 6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 2위에 올랐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즐거운 문화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GAC 공모전시
사모곡 비우면서 채우는... : 류현자 개인전

일시 : 2025-5-2(금) ~ 2025-6-1(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광주시립교향악단 395회 정기연주회 '형제들'

일시 : 2025-05-30(금)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41

류현자 개인전